



## 종이팩업계



최 인 절  
종이팩재활용협의회  
사무국장

# 재활용 활성화 주력

종이팩은 1970년대 초부터 주로 우유포장 용기로 사용하여 왔으나 최근에는 두유 및 기타 식음료 용기는 물론 소주·막걸리 등의 주류 용기로도 사용하는 등 그 사용 범위가 점점 커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종이팩이 타 용기보다 위생적이며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이며 안전성이 높은 점 등 다양한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사용하고 난 폐 종이팩은 화장지로 재활용되기 때문에 자원의 절약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하겠다.

종이팩은 대부분 최고급 펄프와 약간의 PE로 만들어진 카톤팩(케이블 탑형 살균팩)과 펄프, PE, 알루미늄호일로 되어 있는 테트라팩(브릭크형 멸균팩)으로 2가지가 있는데 카톤팩은 주로 우유 포장용기로 사용하고 있고 테트라팩은 장기보관이 가능한 두유 및 주스 등 음료, 주류 포장용기로 사용하고 있다.

카톤팩 생산업체인 (주)한국아이피, (주)한국팩키지, 삼릉물산(주), 삼영화학공업(주)이고, 테트라팩 생산업체로는 한국테트라팩 유한회사, CMC코리아 등 6개 업체가 연간 약 66,000톤(49억개)을 생산 공급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 우유용이 6만톤(41억개), 두유 등 기타용이 6천톤(8억개)이고 폐기물로 수집되어 화장지로 재활용되고 있는 것은 약 24,000톤(36%)가량이다.

우유(시유) 포장지로 사용하고 있는 종이팩은 우유소비량이 늘어남에 비례하여 생산량도 늘어날 것이나 최근 몇년동

## 종이팩업계

## “종이팩 제조업체 및 사용업체, 재활용업체가 중지를 모아 현명하게 대처해야”

안 우유(시유) 소비량이 연간 2~3% 증가에 불과하기 때문에 매년 크게 성장하리라고는 기대하기 어려운 형편이며 더욱이 최근에는 우유용기로 플라스틱 용기를 사용하는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어 신장율은 크게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따라서 현재 사용 비중이 낮은 식음료·주류용으로의 확대를 기하기 위하여서는 종이팩의 많은 장점을 살리고 제조기술 개발과 홍보가 뒤따르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재활용에 있어서도 지방자치단체 및 중간 수집상 등에서 폐우유팩을 열심히 수집하여 재활용 업체인 화장지제조 업체에 공급하려하나 제지회사에서는 제품(화장지)이 잘 팔리지 않기 때문에 받기를 꺼리고 있어 재활용에 걸림돌이 되고있다고 하니 국·공립 기관은 물론이고 공공기관, 단체, 대 기업체 등에서 일정 비율을 의무적으로 사용토록 조치하여 재활용이 활성화 되도록 하여야할 것이다.

2003년부터 실시 예정인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에 있어서 그 내용을 요약하면 폐 종이팩에 대하여 예치금이 없어지고 부과금이 생겨 재활용 의무 생산자가 자발적으로 일정량을 재활용토록 하고 있으나 동 재활용량(비율) 미달시는 부과금액의 30% 가산액을 부담해야 되고 또한 재활용 비용을 현실화 한다고 하니 현재의 예치금보다 부담액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것도 유의해야할 것이다. 또한 현재는 종이팩 사용자(유업체 등)가 전액 부담하던 예치금이 팩 제조자도 부담해야 되고 사업자 단체(종이팩재활용공제조합)도 만들어 운영 준비를 해야되기 때문에 금년은 종이팩 제조업체 및 사용업체, 재활용 업체가 머리를 맞대고 중지를 모아 현명하게 대처 해야하는 바쁜 한해가 될 것이다. ☞